

장 식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평권의 집단구조를 차용한 군중심리에
관한 연구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201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이 혜 선

펭귄의 집단구조를 차용한 군중심리에
관한 연구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장 식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이 혜 선

인 준 서

이혜선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빠르게 발전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 조직화되어 군중 속에 과몰입 살아야만 한다. 그 속에서 일관된 흐름에 휩쓸려 사회적 제도에 순응하여 의존하고 있다.

예술가들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써 타인에게 현 사회의 참모습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정체성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하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게끔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본인 또한 현 시대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대인의 군중 심리에 대한 작업이 본인 작업의 바탕이 되었다.

본 연구는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군중의 이미지를 단순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작품을 통하여 현대인의 자화상을 본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군중의 모습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인 작품의 조형화 과정에 관한 연구인 본 논문은 모두 3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제 1장 서론에서는 본인 작품의 주제인 ‘모던피플 contemporary people’에 관한 연구목적과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 2장 본론에서는 작품의 형성 배경과 표현 방법 및 내용에 관한 분석을 서술하였다.

제 3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 더욱 연구해야할 과제를 서술하였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	---

II. 본론

1. 작품의 형성배경	3
2. 작품의 표현 방법	
(1) 형태적 측면	7
(2) 재료적 측면	11
3. 작품 분석	13

III. 결론	35
---------------	----

참고 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1] 모던피플 Contemporary People, styrofoam, 가변설치, 2011	· 14
[작품2] 드로잉 시리즈1, 종이, 연필, 지우개, 19x20cm, 2011 17
[작품3] 드로잉 시리즈2, 종이, 연필, 지우개, 19x20cm, 2011 19
[작품4] 드로잉 시리즈3, 종이, 연필, 지우개, 19x20cm, 2011 21
[작품5] 드로잉 시리즈4, 종이, 연필, 지우개, 19x20cm, 2011 23
[작품6] 드로잉 시리즈5, 종이, 연필, 지우개, 19x20cm, 2011 25
[작품7] 드로잉 시리즈6, 종이, 연필, 지우개, 19x20cm, 2011 27
[작품8] 판넬 드로잉, 판넬, 연필, 펜, 지우개, 150x20cm, 2011 29
[작품9] The Crowd, 종이, 연필, 지우개, 47x33cm, 2010 31
[작품10] blind person, F.R.P, 50x20x20cm, 2010 33

I. 서론

급격한 산업화에 이어 디지털화로 인한 발전은 현대인들에게 막연한 불안감과 상실감, 극도의 소외감을 안겨준다.

이러한 산업화에 따라 인간의 개성은 점차 소멸되고, 거대집단과 제도에 순응해야 만이 수월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으며 또한 세계화라는 관념 덕에 각 나라는 서로 교류를 통해 점점 닮아가 결국엔 모두 똑같은 유형의 사회가 형성되어진다. 본인은 위에서 거론한 현사회적 성격을 바탕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동시대 군중의 이미지를 단순화하여 조형화 시키고, 전시 공간 속에서 감상자들과 현실세계의 새로운 시각의 모습을 함께 공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인의 작품의 목적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전시의 주제를 '모던피플 contemporary people' 이라고 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인의 집단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현대사회의 모습을 재인식하고자 한다. '군중형태'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으로 하여 일률적이며 획일적인 기법으로 조형화 시키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한다.

귀스타브 르봉 (Gustave Revon 1841~.1931)³⁾은 군중에 대하여 “현대에는 군중의 시대로 군중의 힘은 점점 더 중대되고 있으며 군중은 사상이나 스타일이 비슷하고 독특한 시대성을 반영하며 익명적, 단순성, 감염성 등을 갖고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고도산업 사회를 거치면서 사람들은 점차 외부 지향형(타인지향형)¹⁾ 인간

1) 미국의 사회학자 D.리스먼이 《고독한 군중》(1961)에서 사용한 용어. '외부지향형'이라고도 한다. 개인의 동조양식(同調樣式)의 세 가지 유형 중 한 양식이다. 자본주의사회가 독점단계로 들어가 사회적 생산이 국내시장의 대량소비에 의존하게 된 20세기 대중사회에서의 지배적인 성격유형이다.

이 되어 주위 사람들로 부터 격리되지 않기 위해 애썼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순수함과 달리 내면적인 어둠에 시달려왔다. 그 어두운 고립감은 수 십년이 지난 오늘날 까지도 이어져 현대인들을 괴롭히고 있다. 조직, 함께 한다는 것, 집단, 그것의 매개체로서 존재 하는 것, 모든 사람이 그런 무미건조한 모양으로 세상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아닐까? 집단의 압력, 강조성, 행동 뿐만 아니라 정서면에서도 사람들과 순응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등등, 이러한 여러 요인으로 인해 획일화되고 무력해진 군중 속의 개인에 관해 서술하기로 한다.

이와 같이 본인은 이러한 동시대성을 바탕으로 현대사회 집단에 대한 본인의 시각을 감상자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군중심리’에 대해 이해하고 본인 작품 소재인 ‘헝귄’ 과 군중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본인 작품의 제작의도와 표현 방법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II. 본 론

1. 작품의 형성 배경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사회의 급격한 발전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반면 그 뒷면에는 막연한 불안감과 상실감, 극도의 소외감을 안겨준다.

빠르게 변화하고 혼란스러운 현대 사회에서 살아나려면 주변 사람들과 순응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인간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개인적인 공간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게 쉽게 소속된 집단에서 발을 빼게 되면 불안하고 소외감을 느끼게 되어 정신적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혼자서는 자유롭지만 금세 어디에도 소속되어있지 않다는 불안감이 찾아오면 외로워지고 급기야 우울증과 강박증에 빠지고 마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다반사이다.

데이비드 리스먼은 [고독한 군중]에서 “각 나라의 고유한 특수성 이라는 것은 소멸되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인간만이 고정된 사회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누구든지 암전하게 순응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조건이나 제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¹⁾고 말한다. 또한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인간이 처해있는 상황이 점점 닮아 간다는 사실에 주목

1) 데이비드 리스먼, <고독한 군중>, 류근일 역, 동서문화사, 1977, 28p

하라고 한다.

이런 이유에서 사람들은 점점 정형화 되고 무미건조한, 무력한 민중이 되어 숨 막히는 사회 속에 갇혀 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일관된 흐름으로 움직이고 조직화 되어 군중 속에서 무리를 지으며 서로를 따라가는 것일까?' 본인은 이러한 의문을 떠올리게 되었으며 그 속에서 해답을 찾기 위해 본인이 생각하는 군중을 작품을 통하여 어떻게 표현해 나아갈지 생각해 보았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곧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누구나 어떤 식으로든, 그리고 어떤 형태의 사회이든 그것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 즉 인간은 모여 살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군중이 될 수 있는 '잠재적 군중'이기도 하다. 1) 사회 다수인들의 행동만 고찰해본다면 군중은 유달리 열악한 정신 상태를 드러낸다. 군중은 의심할 나위 없이 언제나 무의식 상태에 있지만, 이제 막 우리가 진입한 시대는 명실상부한 군중의 시대 가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운명에 굴복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군중'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한자리에 모인 개인들의 집단을 의미하는 말로 통용되는데, 그런 집단은 그렇게 모인 개인들의 국적이나 직업이나 성별과도 무관하고, 그들을 모이도록 자극한 우연한 계기들과도 무관하다. 심리적 관점에서 보면 '군중'이라는 표현은 대단히 다양한 의미를 나타낸다. 집단화된 모든 감정과 생각을 동일한 방향으로 집중 시킬 수 있다.

군중의 모든 감정과 행동은 감염력을 지녔고 그것은 군중을 표준화 시킨다. 더구나 그런 감염력은 심지어 개인으로 하여금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

1) 퀴스타브 르 봉, <군중심리>, 김성균 역, 2008, 8p

기의 이익마저 기꺼이 희생하게 만들 정도로 강력하다. 그동안의 의식의 개성은 완전히 소멸되고 의지와 분별력도 상실하고 만다.¹⁾

사람들은 저절로 일관된 흐름을 만든다. 사람들이 이 흐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힘들고, 흐름을 따라 움직이면 수월하다.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처럼 사람은 다른 어떤 종보다 더 서로 얽혀서 살아간다. (...) 사람이 가장 잘 따라하는 대상은 대개 다른 사람들이다.

철학자 에릭 호퍼(Eric Hoffer, 1902~1983)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게 놓아두면 그들은 대개 서로 흉내 낸다. (...) 개인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주는 사회는 당혹스러울 정도로 획일화되는 일이 많다’라고 지적했다.²⁾

반복되는 단조로움과 획일성의 문제는 현대 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에 침투해 있다. 그리고 지나치게 발전된 나라에서는 복잡 미묘한 욕구불만과 간접적인 소외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군중의 일부 ‘타인’과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사회나 개인의 창의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는 있어도, 어떤 ‘순응방식’없이 살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사회에서 개인은 결국 개혁보다는 적응이라는 방식으로 현실생활에 익숙해져 갈 것이다.³⁾

보이지 않는 사회적 명령에 의해 밀물처럼 분위기에 휩쓸려 다니는 무리들, 단순화되어버린 그런 현대인들 집단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의사소통이 단절된 낭만을 잃은 지 오래인 현대사회의 단편적인 모습을 묘사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인은 작품을 통해 군중의 정체성을 표현하여 연구주제를 ‘모던피플 contemporary people’이라고 정하였다. 여기서 주

1) 퀴스타브 르 봉, <군중심리>, 김성균 역, 이레미디어, 2008, 52p

2) 테즈먼드 모리스, <인간 동물원>, 김석희 역, 물병자리, 2003, P329

3) 데이비드 리스먼, <고독한 군중>, 류근일 역, 동서문화사, 1977, 70p

제를 ‘모던피플’ 이라고 정한 이유는 영문주제인 contemporary people 을 번역한 ‘현대인들’은 전시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은 어감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의 성격을 바탕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군중’의 이미지로 표현되어진 작품을 몽환적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또한 작품을 통해 사람들 속 깊이 내재 돼 있는 고독감에 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어 함께 공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인 작품의 목적이다.

2. 작품의 표현방법

예술가는 작품 안에 자아를 투영하여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위치를 확인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예술이라는 형태를 빌어 끊임없이 자아와 타자, 개인과 집단 등을 발견하고 사회와의 관계를 인식하려는 예술가의 노력은 잠재된 자아를 발견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자신을 개입시켜 자기실현을 구축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본인 또한 이러한 경향을 바탕으로 예술작품을 통해 본인이 관찰자의 입장이 되어 동시대 속 타자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창작하여 작품을 만들고자 시도 하였다.

본 연구의 주제는 본인이 생각한 현 시대의 군중의 정체성을 찾는 것에 대한 고찰에서 시작되었다.

(1) 형태적 측면

본인은 ‘군중’의 이미지에 대한 표현의 소재로써 ‘펭귄’을 차용하였다. 여기서 펭귄은 생물학적 관점에서의 구체적 형태를 중요시한 것이 아니라 대중적으로 상징화된 펭귄의 이미지와 인간의 실루엣을 결합시켜 단순화 시킨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현대조각가 들은 형태의 내부를 부정하고 조각에서 의미가 발생하는 원천을 외부에 설정하는 것이었다.¹⁾ 이러한 요소를 차용하여 본인 작품에서 펭귄의 내부적 요소와 구체적인 구조들을 삭제하고 단순화시켜 여러 마리의 펭귄의 외적형태와 상징적 이미지 그리고 변

1) 로잘린드 크라우스, <현대조각의 흐름>, 윤난지 역, 예경, 1997, 315p

형을 통해 ‘군중’을 표현하였다.

한 겨울에 자주 보게 되는 광경인 출근길의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펭귄 집단의 행렬 같다는 생각이 들며 시선을 고정하게 된다. 이러한 본인의 시각적인 경험을 전제로 하여 ‘펭귄’을 군중의 표현 소재로 선택하게 되었다. 펭귄이 작품에 주된 소재가 된 이유는 본인에게 있어 펭귄은 외형상으로 사람과 닮은 귀여운 동물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 뿐 아니라 펭귄은 대중들에게 사람형상과 많이 비유되어오곤 한다.

검은색 등과 흰색 배를 갖고 있는 펭귄은 지구에서 가장 춥고 바람이 많이 불며 건조하고 어두운 대륙인 남극에서 서식한다. 그들은 한 번 집결하게 되면 수천에서 수만 마리가 공동 집단의 생활을 한다. 영화 ‘펭귄-위대한 모험’을 보면 설원을 배경으로 펭귄들의 경이로운 삶을 보여준다. 특히 황제펭귄은 평균 시속 0.5킬로미터로 매우 느리지만 오래 걸을 수 있고 그 모습은 사람의 모습과 많이 닮아 ‘까만 연미복을 입은 남극신사’로도 불리 운다. 영화 ‘배트맨’에서는 펭귄 맨 이라는 인간과 펭귄이 섞인 모습을 하고 있는 기괴한 악당이 등장하기도 한다. 또한 오늘날 디지털 시대의 어린이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린 ‘뽀로로’라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호기심 많은 아기 펭귄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이처럼 펭귄은 대중매체 속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많이 비유되어 진다.

사실 펭귄은 자신의 생각이나 주관 없이 앞의 펭귄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맹목적인 집단 심리’가 강한 동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사회과학자 마크 뷰캐넌은 “사람들은 남극의 얼음 구멍에 둘러서서 누군가가 먼저 뛰어들기를 바라는 펭귄들과 닮았다. 또한 사람은 펭귄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로 서로 모방한다. 자기와 다른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서 가치 있는 정보를 배우는 것이다.”¹⁾ 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서로 모방하고 흉내 내는 인간의 ‘균중심리’와 많이 닮아 보인다. 또한 펭귄의 생김새는 몸집부피와 비례 양감 등에서 사람의 형상을 빼닮았고 또한 서로 똑같이 생긴 그들의 생활 방식은 균중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소재라고 생각되어진다.

집단생활에서 안정감과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펭귄, 그러나 그 무리를 이탈하면 죽기 쉽상이다. 어쩌면 이러한 암묵적인 집단의 억압 속에서 그를 구성하는 개개인은 침묵과 통제를 강요당하는 것은 아닐까? 본인은 이러한 펭귄의 특성을 차용하여 동시대 균중을 설명 하려한다.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은 펭귄의 구체적인 형태를 지우고 단순화시킨다. 이러한 단순성은 사물의 본질을 표현하기 위하여 형태를 극도로 간결화 하여 작품에 사물의 상징적인 특징만 남긴다. 현대 조각에서는 군더더기라고 생각되는 모든 세부적인 것을 삭제해버리고 꼭 있어야만 하는 ‘기본 형태구조’만으로 표현하고자하는 사물을 상징화 하였다. 단순화를 통하여 표현의 순수성을 지향하는 현대 조각의 예술관에 영향을 받아 본인 작품에서도 단순성이 등장하게 된다. 눈, 귀, 입 같은 감각기관들이 생략되어 모호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집단정신에 사로잡힌 개인들은 매우 단순한 성격을 갖게 돼 의식의 개성은 소멸 된 채로 서로 비슷하게 닮아간다. 따라서 본인은 이와 같은 현대인의 특성을 표현 하기위해 한 가지 재료를 사용하고 그것을 동일한 형태와 같은 색상으로 표현 함으로써 현대인이 느끼는 고독과 소통의 불능 상태를 이야기한다.

또한 작품을 제작하고 전시하는 과정에서 전시장을 어둡고 다소 억압된

1) 마크뷰캐넌, <사회적 원자>, 김희봉 역, 사이언스북스, 2010, 137p

분위기로 연출하기 위해 조명을 벽 쪽으로 모두 돌려놓았다. 전시장을 들어 오자마자 전체적 펍컨집단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여 군중의 중압감을 나타내었다. 그것은 개인 하나 하나가 모여 강력해진 집단의 힘을 나타내려 한 의도이다.

작품을 전시하는 설치 방법 또한 본인 작품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현대 조각에서는 조각과 소조의 구분이 무의미하게 되어 조각하는 것 뿐 만 아니라 구성하고 세우고 조립하고 배열하기도 한다. 여기서 본인은 하나의 객체가 의미하는 감성적인 이미지 변형과는 다른 맥락인 이성적 방법으로 작품을 배열 하고자 했다. 어떤 객체가 공간에 일정한 간격을 갖고 반복적으로 위치함으로써 그 배열이 주는 절제가 감성을 배제한다. 그것은 강렬한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작품들 사이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사람과 사람사이에 존재하는 사회적 간격을 나타내었고 단일한 덩어리의 재료를 반복 사용하여 현대인들의 생활의 단조로움과 획일성을 나타내었다.

본인 작업은 마치 언뜻 보면 똑같이 생긴 오브제들이 정렬 되어 있어 보이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모두 다 조금씩 다른 모양을 하고 있다. 급속한 산업발전으로 기계로 찍어낸 듯한 작품들 속에 수공적 작업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각 각의 모양새가 조금씩 다름에 따라 잔잔한 리듬이 느껴지게 하였고 그것은 각 개인들의 억눌린 자아를 나타낸다. 무미건조함 속에 ‘살아 있는 존재들’을 표현하려했다.

(2)재료적 측면

본인 작업에서 ‘군중’을 표현함에 있어서 사용된 재료에는 산업재료인 스티로폼이 사용되었다. 스티로폼이 주는 폭신함과 손대면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연약한 느낌을 빌려 ‘군중’형상을 제작하게 되었다. 본인은 이러한 스티로폼 재료의 특성을 이용하여 현대인의 조형적 형상을 창출하였다.

작품에서 백색을 사용한 데는 그 색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와 관련이 있다. 백색은 역사상 무수히 많은 개념들과 관련된 색이다. ‘고요함’이나 ‘공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 잠재되어 있는 의미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백색은 부재나 제로 상태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백은 섬세하고 부서지기 쉽다. 그것은 탄생의 순간에서조차도 완벽한 백이 아니며 접촉하는 순간 백이라고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즉시 오염되어 버린다.¹⁾ 그것이 바로 백색의 느낌이다. 이처럼 백색은 본인이 나타내고자하는 군중 속 개인의 무의식의 상태, 그리고 연약함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군중의 이미지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색이라는 생각에서 수많은 백색 형상들을 만들어 전체적인 분위기를 주도한 것이다. 이처럼 백색이 주는 다양한 상징성과 펭귄의 상징성을 접목시켜 무력한 군중의 이미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전시장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하였다.

드로잉은 사각형 종이 안에 연필로 그려졌다. 그것은 작품의 일부로써 보이는 것을 조직화하거나 개념화 하는데 도움을 준다. 드로잉의 출발점은 예

1) 하라켄야, <백>, 이정환 역, 안그래픽스, 31p

측할 수 없는 결과를 낳는 단순한 텍스트이다. 연필을 사용하여 손으로 그린 이들 드로잉은 매우 섬세하여 가상의 존재처럼 보인다. 드로잉은 결코 기계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를 통해 입체로 표현된 작품에 대한 여러 구상을 구체화 했다.

이처럼 본인의 작품은 각각 이미지라기보다는 통합적인 전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위한 설치 형식도 작품의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양식을 바탕으로 본인은 본인이 선택한 이미지로서 ‘펭귄’을 차용하여 ‘군중’을 표현해 보았다. 이는 변형된 오브제라 할 수 있다. 또한 본인 작품을 통하여 감상자들이 새로운 시각의 현 시대의 군중을 경험 하도록 하기위해 이번연구를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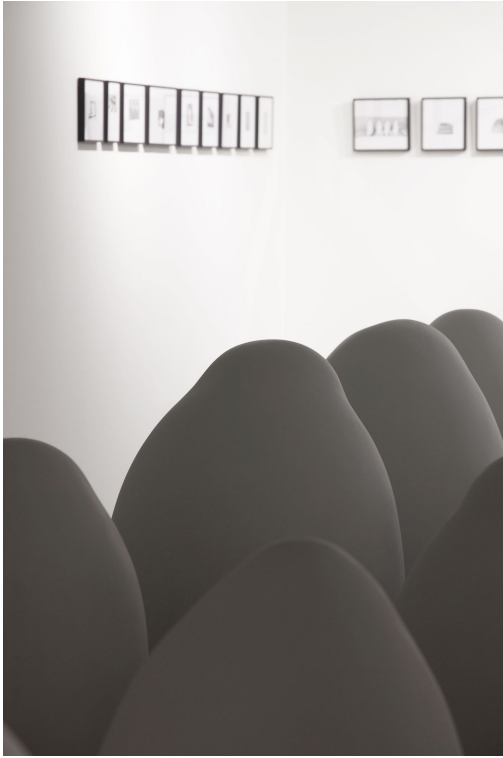
고달프고 단조로운 현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본 전시를 통해 본인은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감상자들로 하여금 공감대를 형성시키고자 유도하였다. 본인은 작품을 통해 몽환적이고 정적인 공간을 통하여 비현실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감상자들이 직접 작품 사이사이에 들어와 마치 군중 속에 합류 한 듯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였다.

3. 작품 분석

본인의 작품은 펭귄의 형상과 이미지를 바탕으로 ‘군중’을 표현한다. 펭귄의 특성과 이미지를 활용함으로써 정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획일적인 세계를 묘사하고 비인격화 현상을 표현하여 이러한 공간 속에서 감상자들은 새로운 시각의 경험을 통하여 공감할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작품 1] 모던피플 Contemporary People, styrofoam, 가변설치, 2011



[작품 1] 의 부분

[작품 1] 모던피플 Contemporary people

작품크기: 가변크기

작품재료: 스티로폼, 핸디코트, 수성페인트

제작년도: 2011년

제작방법: 스티로폼에 밀그림을 그린다. 밀그림을 따라 슬라이다스를 사용하여 열선으로 자르고 잘린 형태를 사포질 하여 스티로폼표면을 다듬는다. 스티로폼에 단단하게 핸디코트를 입힌 후 다시 사포질한다. 수성페인트로 칠한다. 이와 같은 방법을 똑같이 여러번 작업 한다.

작품설명: 본인은 이 작품의 모티프를 추운 어느 겨울날 횡단보도에서 사람들이 서로 떠밀리듯 움직이는 모습에서 얻었다. 잔뜩 움츠린 채 신호등이 지시하는 대로 한 방향으로 획일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음울한 현대인의 초상을 발견했고 이를 추운 지방의 펭귄으로 형상화 한 것이다. 관찰자의 시선으로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보았기 때문에 기존 펭귄의 형상에서 최대한 생략하고 단순화시키는 방향으로 수정작업을 진행해야했다.

작품을 표현함에 있어 형태적인 부분에서 단순하게 뭉뚱그려 나타낸 것은 군중을 형성 하는 개인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군중 속의 개인은 사건이나 사태를 면밀히 관찰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보기 때문에 그 중간과정들도 전혀 파악하지 못한다. 또한 군중은 단일체를 형성하여 군중의 정신을 단일화시키는 법칙에 종속된다.



[작품 2] 드로잉 시리즈 1, 19x20cm, 종이, 연필, 지우개, 2011

[작품 2] 드로잉 시리즈 1

작품크기: 20x19cm

작품재료: 종이, 연필, 지우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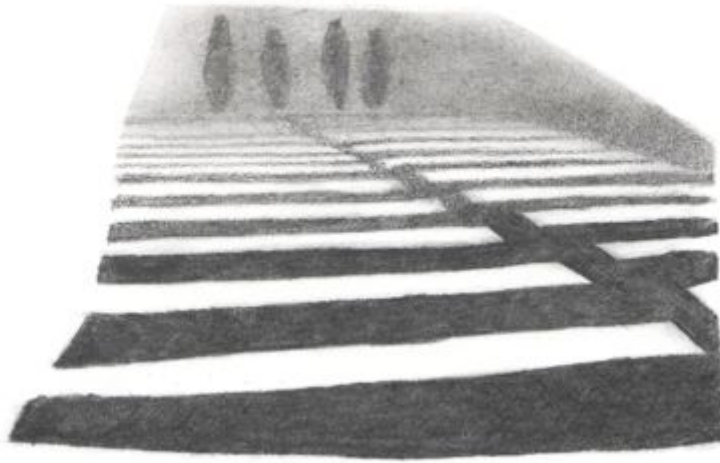
제작년도: 2011년

제작방법: 연필로 그린다음 색칠한 후 휴지로 문지른다.

픽사티브를 뿌려 번짐 현상을 방지한다. 그런부분을 채우고 외곽선을 깔끔하게 지우고 다듬은 작업은 마치 판화 작업처럼 보일 수도 있다.

작품설명: 이 작품은 패션쇼 런웨이에서 워킹 하는 모델들의 이미지를 삭제하고 생략하여 본인에 의해 재탄생된 현대 집단의 한 예이다. 삭제된 이목구비에 두터운 외투만 입고 있는 모습은 단조롭고 갑갑한 현실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무미건조함을 표현한 것이고 획일적인 모습은 소통불능이 되어버린 그들의 특성과 개성을 잃어버린, 단순화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드로잉 안에 척박한 도시 속에서 비인간화되어가는 인간들의 사회적 위기 상황을 연필과 지우개로만 표현하고자 하였다. 현대인의 메말라 가는 삶, 자신의 존재에 대해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하는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작품 3] 드로잉 시리즈 2, 19x20cm, 종이, 연필, 지우개, 2011

[작품 3] 드로잉 시리즈 2

작품크기: 20x19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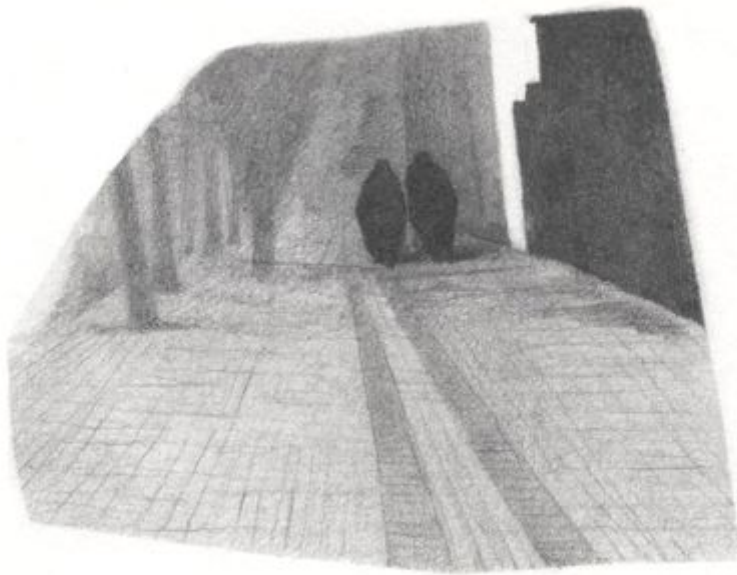
작품재료: 종이, 연필, 지우개

제작년도: 2011년

제작방법: 앞의 제작방법과 동일함.

작품설명: 정적이고 어두운 흐릿한 형태로만 표현한 그들은 최면에 걸린 듯 도시의 기호들이 시키는 대로만 횡단할 뿐이다.

이 작품은 횡단보도 건너편에 사람들이 서있는 모습을 본인이 직접 카메라로 찍어 드로잉 한 것이다. 그린부분을 채우고 외곽선을 깔끔하게 지우고 다듬은 작업은 마치 판화 작업처럼 보일 수도 있다. 멀리 보이는 사람들에 비해 거대해 보이는 횡단보도는 갑갑한 현실사회를 나타내고 있다. 동시대의 수동적인 군중을 연출하고자 한다. 획일적인 세계를 묘사하고 비인격화 현상을 표현한다.



[작품 4] 드로잉 시리즈 3, 19x20cm, 종이, 연필, 지우개, 2011

[작품 4] 드로잉 시리즈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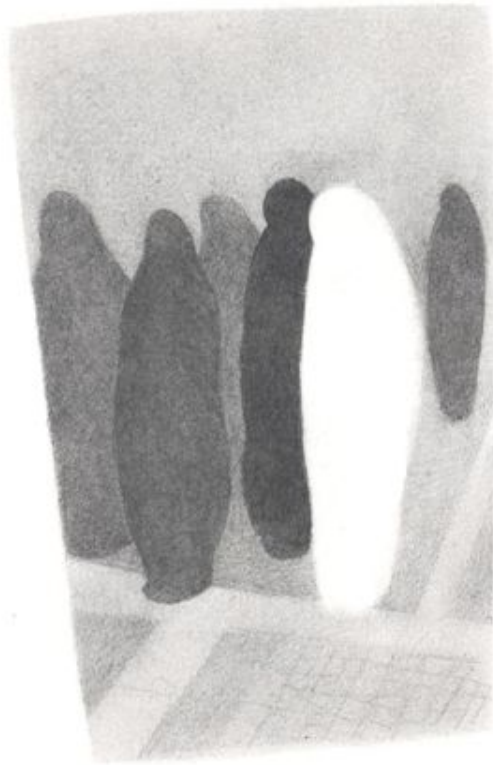
작품크기: 20x19cm

작품재료: 종이, 연필, 지우개

제작년도: 2011년

제작방법: 앞의 제작방법과 동일함.

작품설명: 이 작품은 본인이 직접 거리의 한 모습을 촬영하여 얻어낸 이미지를 드로잉 작업으로 옮겨보았다. 멀리 보이는 두꺼운 외투입고 움츠린 채 걸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은 거대 도시 속의 고독함을 나타낸다. 그들은 뺨권 한 쌍이 뒤통 거리고 있는 모습과 유사하다. 이것 또한 현대 군중 속 고독함의 한 예로 보아 단순화된 실루엣으로 표현한 것이다.



[작품 5] 드로잉 시리즈 4, 19x20cm, 종이, 연필, 지우개, 2011

[작품 5] 드로잉 시리즈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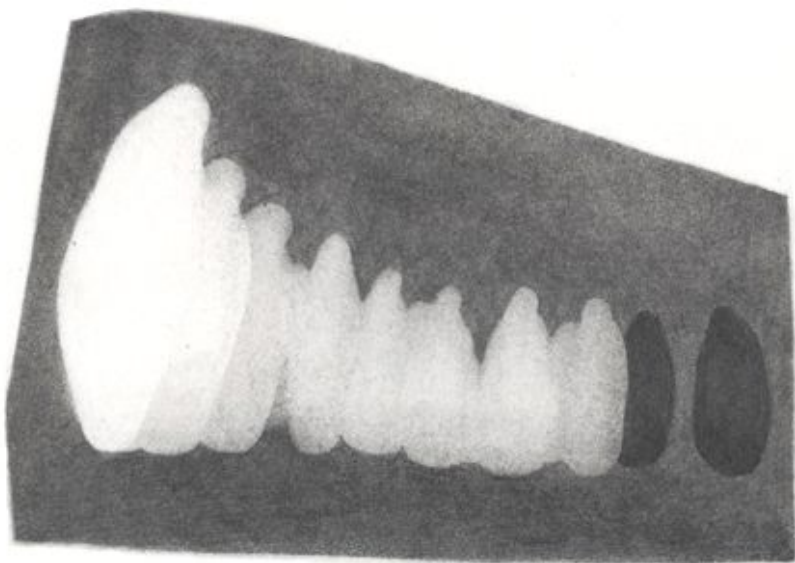
작품크기: 20x19cm

작품재료: 종이, 연필, 지우개

제작년도: 2011년

제작방법: 앞의 제작방법과 동일함.

작품설명: 이 작품은 겨울철 신호등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본인이 직접 사진 촬영을 한 후 변형시켜 드로잉 작업을 한 것이다. 하나같이 두꺼운 코트를 입고 추위에 움츠러든 사람들은 가끔 우스꽝스러운 인상을 준다. 이러한 모습들은 통통하고 획일적인 색감의 펭귄들이 연상된다. 앞에 본문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인간과 펭귄은 시각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다. 이러한 두 형상의 모습을 오버랩하여 단순화시킨 형태로 현대사회의 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작품 6] 드로잉 시리즈 5, 19x20cm, 종이, 연필, 지우개, 2011

[작품 6] 드로잉 시리즈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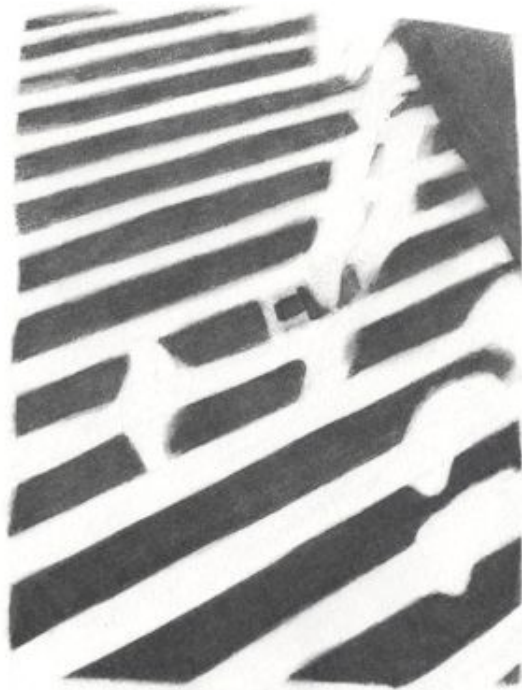
작품크기: 20x19cm

작품재료: 종이, 연필, 지우개

제작년도: 2011년

제작방법: 앞의 제작방법과 동일함.

작품설명: 이 작품은 성가대사진을 보고 모티브를 얻었다. 교회에서 성가대원들이 똑같은 색상의 커다란 성가 책을 입고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하여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면서 노래하는 모습은 펭귄들이 무리지어 뒤뚱거리고 있는 모습과 유사하다. 이것 또한 현대 군중의 한 예로 보아 펭귄을 차용하여 인간의 모습을 단순화시켜 표현한 것이다.



[작품 7] 드로잉 시리즈 6, 19x20cm, 종이, 연필, 지우개, 2011

[작품 7] 드로잉 시리즈 6

작품크기: 20x19cm

작품재료: 종이, 연필, 지우개

제작년도: 2011년

제작방법: 앞의 제작방법과 동일함.

작품설명: 이 작품은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길을 건너는 이미지자료를 보고 변형시켜 드로잉 작업을 한 것이다. 횡단보도와 사람들의 색감을 흰색으로 통일시켜 통합된 하나의 실루엣처럼 표현해 보았다. 사회적 기호들에 묻혀 버린 군중들을 표현하여 수동적으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타나내었다.



[작품 8] 판넬 드로잉, 150x20cm, 판넬, 펜, 연필, 지우개, 2011

[작품 8] 판넬 드로잉

작품크기: 20x19cm

작품재료: 종이, 연필, 지우개

제작년도: 2011년

제작방법: 연필로 흐리게 밑그림을 그린 후 연필이나 펜으로 색을 채운다. 연필로 채운 곳은 휴지나 면봉으로 문지른다. 외곽선은 지우개로 지워 선명하게 표현한다.

작품설명: 이 작품은 [작품 1]의 형태를 갖고 기다란 군중의 행렬을 드로잉으로 나타낸 것이다. 펭귄들은 빙하위에서 먹이를 찾기 위해 수천마리가 줄을 지어 행렬한다. 그 모습은 현대인들의 출근길의 풍경과 매우 비슷하게 여겨진다. 펭귄집단을 차용하여 현대군중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작품 9] The Crowd, 종이, 연필, 지우개 20x25cm, 2010

[작품 9] The Crowd

작품크기: 20x25cm

작품재료: 종이, 연필, 지우개

제작년도: 2010년

제작방법: 연필로 그린다음 색칠한 후 휴지로 문지른다. 외곽선을 지우개로 지워 깔끔하게 마무리 한 후, 픽사티브를 뿌려 번짐 현상을 방지한다.

작품설명: 이 작품은 ‘모던피플Contemporary people’의 최초 아이디어 스케치다. 출근길 회사원들이 때지어 걸어오는 모습에서 우연적으로 펭귄 무리들이 연상되었다. 뚱뚱한 코트를 입고 무겁지만 빠른 걸음으로 같은 곳을 향하는 그들은 애처롭기도 하고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아등 바등 거리는 펭귄의 모습이 연상되면서 그들이 존경스러웠다. 남극에 사는 펭귄들의 혹독한 추위는 냉정한 현실을 나타내는 듯하고 그들의 삶은 마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보는 듯하다. 인간과 펭귄을 합성하여 기묘한 짐승이 된다. 삭제된 이목구비는 군중 속 현대인들의 소통불능에 관한 고독감과 소외에 대해 나타내었다. 색이 들어가지 않고 연필로만 사용한 것은 흑연의 차갑고 건조해 보이는 특성을 이용하여 도시의 삭막함, 우울함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고 뒤로 갈수록 흐려지게 칠하여 원근감을 나타내었다. 극한환경을 극복하며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매일 되풀이 되는 삶에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작업했다. 끊임없이 고뇌, 갈등이 반복되는 현대의 인간, 이러한 상황을 유니크하게 받아들여 우화적으로 표현해 현대 사회의 한 이미지를 전달한다.



[작품 10] blind person, 50x20x20cm, F.R.P, 2010

[작품 10] blind person

작품크기: 50x20x20cm

작품재료: F.R.P

제작년도: 2010년

제작방법: 흙 작업으로 형태를 만들고 붓으로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 후, 석고로 틀을 만들고 그 안에 F.R.P를 부어 원형을 떠낸다. 팔과 발은 유토로 따로 만든 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형한다. 나중에 팔과 발은 몸통에 붙힌 후 경계를 다듬는다. 백색 락카로 전체를 칠한 다음 마스킹테이프로 흰색부분을 막은 다음 검정색 락카를 뿌린 후 마스킹테이프를 뜯어낸다.

작품설명: 'The crowd' 작업의 여러 마리 중 한 마리만 입체로 표현해 보았다. 보통 사람들은 예의를 갖춰야할 장소에 흰색 블라우스나 와이셔츠에 검정색 양장을 입는다. 연미복이 펭귄과 많이 비유되곤 하는 까닭도 명도 대비에 의해 깔끔하게 떨어지는 경계 때문에 단정해 보이는 매력이 있다. 펭귄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어찌면 단순히 통통한 몸집과 예의를 갖춘 듯 한 그들의 몸 색깔 때문이라 생각되어진다. 인간과 펭귄을 합성하여 기묘한 짐승이 된다. 삭제된 이목구비는 소통불능을 이야기하고 이는 본인이 작품을 단순화 하게 된 근거다. 동시대에 살아가는 한 현대인의 자화상을 기묘하게 표현해 보았다.

III. 결 론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사람들은 개성을 잃어버리고 사회집단 속의 개인은 획일화되어 무력해져만 간다. 거대한 도시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적 이미지 위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안고 산다.

사회규칙들이 주는 압박감에 의한 움츠림을 모호한 형상을 통해 나타내 보았다. 그 형상은 개인 보호막이며 틀이고 감옥이며 자기주체의 의미를 상실해버린 알 수 없는 두루 멍실한 형태의 껍데기일 뿐 이다. 본인은 이러한 동시대성을 바탕으로 군중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되어지는 펭귄이라는 동물을 차용하여 현대 군중을 조형화 시키게 되었다. 본인 작업은 군중 속에서 정체성을 상실한 현대인의 실루엣을 표현한 것이다. 현대군중들의 귀여워 보이면서도 외로워 보이는 모습을 펭귄형상을 통해 단순화하고 획일적인 재료로 표현함으로써 오늘날도시의 단편적인 모습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암울한 현 사회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반영하여 조형화된 작품을 통해 현대사회와 군중의 관계를 고찰하여 봄으로써 앞으로의 작업에 새로운 모색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감성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이론적 접근을 소홀히 한 경향으로 작품의 깊이가 다소 얕은 점이 있었다. 본인은 이번 연구를 통해 심도 깊은 반성과 성찰로 새롭게 다가올 창조적 작업들에 대한 작품을 제작해 나가고자 한다.

현대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성숙한 자아의식을 가지며 그것을 바탕으로 진정한 삶의 단면을 끊임없이 제시하여 지각적 표현을 탐구해 나갈 것이다.

[참고 문헌]

로잘린드 크라우스, <현대조각의 흐름>, 윤난지 역, 예경, 1997

마크 뷰캐넌, <사회적원자>, 김희봉 역, 사이언스북스, 2010

귀스타브 르 봉, <군중심리>, 김성균 역, 이레미디어, 2008

데즈먼드 모리스, <인간 동물원>, 김석희 역, 물병자리, 2003

하라켄야, <백>, 이정환 역, 안그라픽스, 2009

데이비드 리스먼, <고독한 군중>, 류근일 역, 동서문화사, 1977

ABSTRACT

STUDY FOR CROWD PSYCHOLOGY USING GROUP STRUCTURE OF THE PENGUINS

—ON THE BASIS OF MY WORK—

Lee, Hye sun
Major in Sculpture
Dept, of Plastic Art
Graduate school of Plastic Art
Sungshin Women's University

People in modern society has been rapidly developing tissues to each other, we must live buried in the crowd. Swept away in a consistent flow of resources in compliance with the social system is dependent.

Artists, the re-certification from a new perspective to the identity of the people living in it and of the true modern society to others as human beings living in the same period, play an important role to share it together have. Even himself,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operations, crowd psychology of modern man has become the cornerstone of the work himself.

In this study, we focused on simplifying the living image of the contemporary crowd. In addition, through work, a self-portrait of modern man, as seen from the perspective of a person to unravel through the appearance of the crowd.

This paper is the study of the principal works on the process In formative these, are composed of three.

In the Chapter 1 of Introduction, is the principal theme of "Contemporary people" were presented on research methods and research purposes.

In the Chapter 2 In this paper, stated that an analysis of how and what the background of the formation and representation of the work.

In the Chapter 3 of conclusion is to organize the contents of this paper, further stated that the issues to be further studied.